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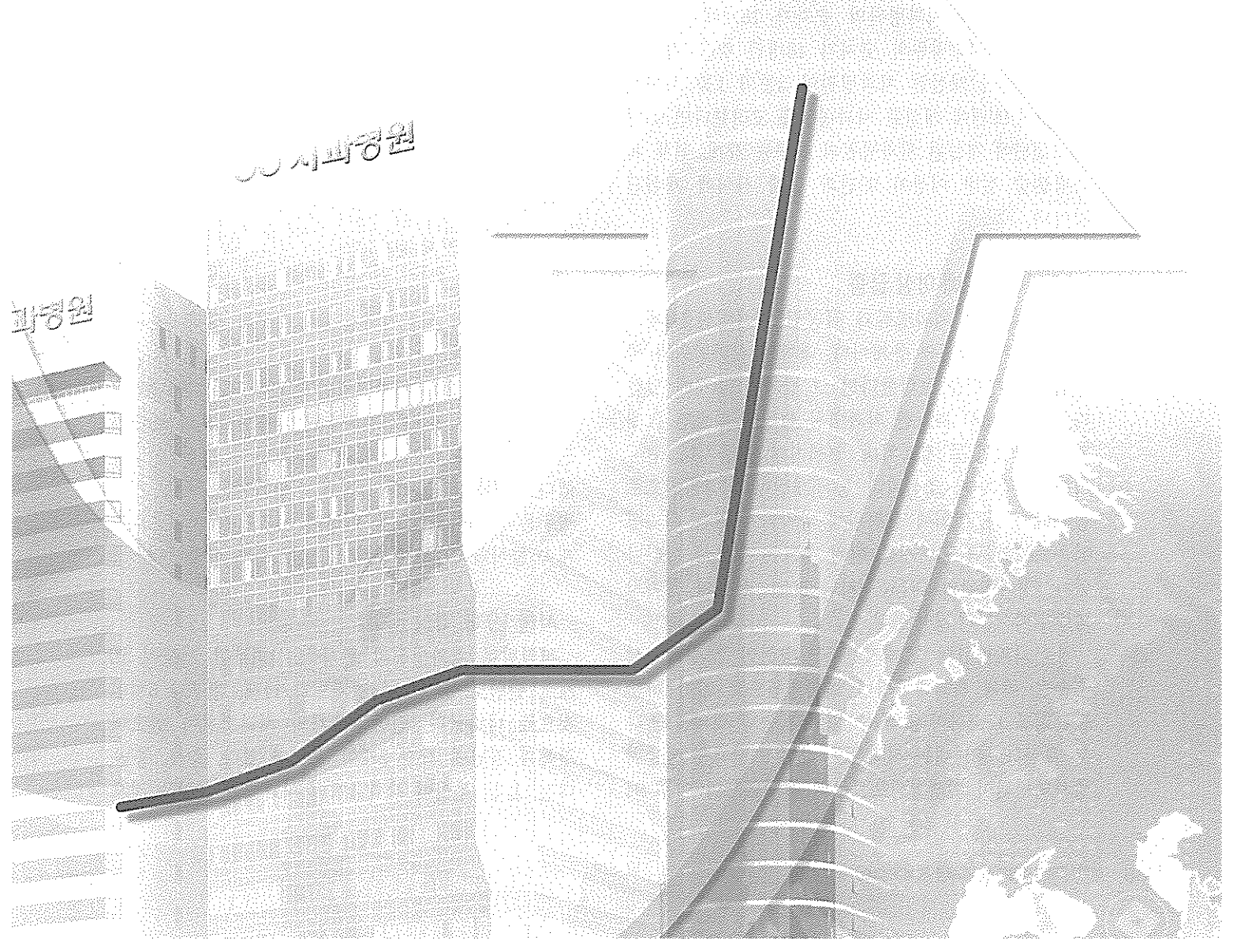
치과병원 증가, 양질 진료 서비스냐, 과다 진료비 청구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파악한 전국의 치과병원 개수는 48개(대학의 치과병원, 국공립 치과병원 제외).

이중 올해 새로 개설신고한 치과병원이 16개에 이른다.

치과병원의 증가로 치과의사의 활로 개척 및 수련기회의 증가, 연계된 진료 및 질 높은 진료 가능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과다한 시설투자로 인한 지나친 요금 청구, 주변 개원의와의 마찰, 과대광고의 가능성 등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치과병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치과병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편집자>



치과병원 증가, 현재 48개로

99년 이후 2배 급증

안정미 기자(jmahn@kda.or.kr)

최근들어 치과병원이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설신고한 치과병원의 숫자가 16개에 이른다. 이는 현재 치과병원의 숫자가 48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들어 개설한 치과병원이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 99년에 개설된 치과병원을 고려한다면 99년과 2천년에 개설된 치과병원의 총수는 27개. 현재 치과병원중 절반 이상이 99년과 올해 사이에 개설된 것이다.

99년 이후 2배 이상 급증

이는 대학의 치과병원과 국공립 치과병원을 제외한 일반 치과병원의 통계이다. 대학의 치과병원과 국공립 치과병원을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58개에 달한다. 심평원에서 파악한 치과병원 현황에 따르면 11개 치과대학병원 중 경희치대, 연세치대, 강릉치대, 단국치대, 원광치대, 조선치대 등 6개만이 치과병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외에 심평원에 파악되지 않은 치과병원을 고려하면 50여개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치과병원의 태동은 지난 90년, 서울의 청아치과병원에서부터 출발한다.

청아치과병원의 관계자는 “본병원이 생김으로서 수술을 위해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다소나마 없앨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둔다고 말한다. 90년대를 시작으로 하여 92년에는 서울위생치과병원이 위생병원으로부터 독립됐으며 이후 94

연도별 치과병원 개설 현황 (각 명칭 뒤 치과병원 생략)
- 대학의 치과병원 및 국공립 치과병원 제외

| 연도 | 치과병원이름 | 증가수 | 총계 |
|------|--|-----|----|
| 90 | 청아(서울) | 1 | 1 |
| 92 | 서울위생 | 1 | 2 |
| 94 | 서울, 신세계 | 2 | 4 |
| 95 | 청아(인천), 가톨릭, 동아, 경희 | 4 | 8 |
| 96 | 에이플러스, 가우 | 2 | 10 |
| 97 | 형, 목동에, 신성, 상인아세아, 시그마 | 5 | 15 |
| 98 | 심미, 21세기, 델타, 성신, 열린, 성북 | 6 | 21 |
| 99 | 수, 아름다운 맥, 가우징, 청아(인천), 사랑이가득한, 본, 성신, 시흥 예, 명진, 선 | 11 | 32 |
| 2000 | 곽, 화인, 신현대, 푸른, 고운, 분당예, 아름다운, 유디, 고른이, 덤, 엘리트, 수, 하나, 그린, 참조은, 2080 | 16 | 48 |

년에는 서울의 서울치과병원과 대구의 신세계치과병원이 신설됐다.

95년에는 4개의 치과병원이 96년과 97년, 98년에는 각각 2개, 5개, 6개의 치과병원이 개설됐으며 99년에는 11개, 올해에는 16개의 치과병원이 개원 신고를 했다. 경기도의 2080치과병원의 관계자는 “사실 치과병원은 치과의사의 ‘꿈’이라며 치과병원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서울 19개, 가장 많아

지역별로 치과병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9개로 단연코 많았으며 경기도가 11개, 대구가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3개의 치과병원이 있으며 경북과 경남에 각각 2개씩 분포돼 있다. 충북, 충남, 대전, 울산, 부산에 각각 1개의 치과병원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48개 치과병원 중에서 현재 수련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기관은 모두 14개.

나머지 34개는 수련기관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가우정치과병원, 광치과병원, 고른이치과병원 등이 수련기관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치과병원의 증가와 함께 수련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원에서 치과병원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의료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8조 2항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더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치과병원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원에 비해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의무기록실 △급식시설(외부용역시 제외) △세탁물처리시설(외부용역시



99년부터 올해까지 신설된 치과병원 개수는 27개 현재 치과의원 현황은 48개. 절반이상이 99년부터 생기기 시작했다.

제외) △적출물처리시설(외부용역시 제외) △자가발전시설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90년, 치과병원 최초로 설립

수련의 기회 넓혀

병원 설립시 절대 욕심가져선 안돼



청아치과병원
김찬숙 이사장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치과병원을 개원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혼자 개원했을 때 수입이 훨씬 높았죠”

지난 90년, 처음으로 치과병원을 개원한 김찬숙 이사장.

김이사장은 치과병원을 개원하기 전에도 두세명의 치과 의사와 같이 진료를 했다. 그래서 여러명이 같이 진료함으로써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장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임상으로서 혼자 진료하는 것보다 힘이 덜 든다는 것 등. 특히 당시 대학에 적을 두고 있다 개원가로 합류한 황광세씨가 진료와 함께 계속 공부하기를 위한 것도 치과병원을 세우게 된 하나의 동기라고.

“너무 오래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치과계 전망이라는 테마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공동개원을 하거나 치과병원을 개원한 친구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처음 치과병원이 생기고 1-2년 후 수련기관으로 지정돼 후배들에게 수련기회를 확대시키기도 했다. 현재는 입원실과 수술실까지 갖춰져 있다. 구강외과를 비롯한 모든 과가 진료 가능하다.

김이사장이 주장하는 경영철학은 합리적이고 절약적인 경영. 일부 치과병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청구 등은 말도 안된다고.

김이사장은 치과병원을 개원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고려하라고 말한다.

- 병원의 철학을 수립하라 - 뜻을 가져라
- 보람을 가져라 -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곤란하다
- 분수에 넘치지 말라 - 지나친 빚 등에 의존하지 말라
- 작게 시작해서 크게 확장하라
- 봉사의 정신으로 하라

무늬만 치과병원, 상업주의 오염 우려

양질의 진료에 승부수 걸어야

박동운 기자(dongwoon@kda.or.kr)

평소 치과병원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K원장은 지난 7월 아홉 살난 막내딸의 치료 결과를 보고 적잖은 실망을 하고 있다. 집은 강남이지만 병원이 강북인 K원장은 통증을 호소하는 막내딸의 치료를 집근처의 모치과병원에 맡겼다. 3일후 딸아이의 치료 결과와 치료비를 확인한 K원장은 너무나 황당했다.

아말감 충전치아를 뜯어내고 신경치료 후 '유치크라운'을 씌운 경우였다. K원장 같았으면 10만원 미만을 받았을 가격이지만 세배 가까이 되는 치료비가 나온 것이다.

무늬만 치과병원의 실상

올해로 개원한지 20년이 되는 H원장에게 뜻밖의 환자가 최근 찾아왔다.

전에 H원장의 병원에서 근무했던 위생사 K양이 자신의 이모라면서 원장님이 한번 살펴 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이다. K양의 경우 최근 개원하고 시설 좋기로 소문난 A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근무 병원에서 치료하지 왜 여기까지 왔나?”고 묻자 젊은 의사들이 6개월 주기로 자주 바뀌고 진료후 부작용이 생겨 다시 찾는 환자가 30% 수준 가까이 되는 등 믿을 수 없어 왔다는 것이다. H원장은 의료기술의 노하우 없이 운영되는 ‘무늬만 치과 병원’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몇 달 전 모 구회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주변 B치과 병원이 사무장까지 두고 인근 기업 노동조합과 단체계약을 맺으면서 환자를 끌어 모으고 있어 지역 개원의들로부터 분노를 샀다. 결국 B치과 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3백9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최근 치과병원이 급증하면서 개원가의 일부 치과병원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10월말 현재 대학치과병원과 병원부속치과병원을 제외한 서울지역의 일반 치과 병원은 19개에 이르고 있으며,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면 33개가 넘고 있다. 이것은 수도권 지역을 포함, 13개에

성명서에서 25개 구회 구회장들은 의료인의 윤리와 동료들의 상호존중을 외면하고 상업주의에 오염돼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일부 치과 병원의 4가지 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과했던 3년전보다 2배이상 급증한 것이다.

치과병원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일부병원이 속해 있는 지역치과 의원간의 마찰도 비례해서 늘고 있다.

일반개원의와의 마찰 우려

일부 치과병원과 개원가 간의 마찰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지난 6월 초에 발생했다.

서울 25개 구회 구회장들은 일부 치과병원들의 지

나친 상업주의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25개 구회 구회장들은 의료인의 윤리와 동료들의 상호존중을 외면하고 상업주의에 오염돼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일부 치과 병원의 4가지 행위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서 지적한 25개 구회 회장들의 4가지 행위는 현재 개원가에서 치과병원을 생각하는 정서가 어떻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수 있다.

25개 구회 회장들은 △무분별한 호도성 광고 행위 △의료광고를 빙자한 명시적 암시적 자기선전 행위 △불법진료, 비윤리적 진료행위 △치과계를 황폐화시키는 등의 비윤리적 의료기관 취업을 지적했다.

치과병원은 개원 초기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아울러 최소한 4-5명 이상의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이 필요한 만큼 병원식구가 열두명이상 훌쩍 넘기 일쑤다. 여기에 최근 개원한 치과 병원들의 고민이 있다.

●
**K원장은 치과병원이나 공동개원을 하면
 시간을 벌수 있는 만큼 새로운
 술식 공부 등을 통해 양질의 진료쪽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편적인 경영 방식으로 병원 유지도 어렵다는 위기감이 눈에 보이고, 그렇다 보니 과대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 주변 개원 치과와 마찰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진료 왜곡으로 눈총

“치과병원이 외형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속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환자 진료에 있어서도 무리수를 두게 되고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해서 벌금을 물더라도 환자가 늘어난다면 하겠다는 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치과의사 사이에서의 스타일 구기는 문제보다는 병원경영이 시급하다는



최근 치과병원이 급증하면서 주변 개원의와의 마찰, 과도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인한 의료광고법 위반, 과도한 시설비 투자로 과잉진료비 청구비 등이 문제시 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습니다)

것이죠”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후배가 있다는 동대문구회 K원장의 말이다.

K원장은 치과병원이나 공동개원을 하면 시간을 벌수 있는 만큼 새로운 술식 공부 등을 통해 양질의 진료쪽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단독개원보다 더 많은 금전적 수입을 바라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단독개원 치과의사보다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집착한다면 같은 동료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못 지키게 되고 나중에는 의사로서의 윤리도 저버려 동료 치과의사들이 싸잡혀 매도당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K원장은 일부 치과병원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진료왜곡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결국 이것이 민원으로까지 발생, 결국은 치과계 전체에 불이익을 초래할수 있다고 경고 했다.

K원장의 말대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진료 건수를 분석한 결과 6개월간 5백건 미만의 진료건수를 기록한 치과병원이 8곳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곳은 1백건 미만으로 진료왜곡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과병원, 치과의사의 꿈

양질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 자기 개발 시간 증가

이윤복 기자(bok@kda.or.kr)

최근 몇 년 사이에 치과병원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 예전의 경우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개원하면 단독개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치과의료환경의 변화의 하나로 치과병원화 현상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현재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들도 거의 대부분 적어도 몇 년동안 개인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치과병원으로 확장해 오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독으로 치과병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뜻에 맞는 동료들끼리 공동개원의 또다른 형태로 대형화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사례도 많다.

진로의 다양화, 대외적 위상 높여

치과운영의 대형화는 주변치과와 다소 부담스러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치과진료의 또다른 형태로 자리잡아 치과의사의 진로를 훨씬 다양화시키면서 치과의사의 대외적인 위상을 보여주는데도 일조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있다.

그러면 치과병원장들이 단독개원을 뒤로하고 결코 쉽지않은 치과병원 운영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치과병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몇가지로 축약되고 있다.

우선 치과병원은 치과의원과 대외적인 인식과 인지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의 규모나 시설, 인력면에서 또한 의료보험수가 가산을 적용에서부터 기본적인 차이가 나고 있다.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원장들이 치과병원화 하는 원인중 하나가 치과의원보다 치과병원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병원화하려 한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치과병원화가 독자개원보다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지방의 한 병원장은 개인의원에 비해 큰 장점이 없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또한 치과병원장들은 치과의원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병원 운영을 해보겠다는 의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원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손꼽고 있다.

양질의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환자들도 단순히 값싼 진료보다는 보다 양질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분야별 전공자들이 포진하고 있어 협진이 가능하고 종합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만족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지난해 11월 치과병원을 개원한 모원장은 "그룹프랙티스를 하기 위해 전공분야별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개원했다"며 "전문분야별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복합적인 치료에 있어 서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아직 1년이 안된 짧은 개원이지만 다들 만족해 하고 있다며 이전에 개원경험은 없었지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 분당에서 치과병원을 열고 지역사회와 밀착된 새로운 치과병원을 시도하고 있는 한 치과병원 원장은 “앞으로 치과경영의 형태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치과진료를 규모있고 원칙대로 잘 해보려고 치과병원을 개원했다”며 “협진이 가능하고 전문화된 진료가 가능해 진료의 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진료외적으로도 어린이구강보건학교, 전문화된 장애인 진료 및 교육 등을 통해 2차진료기관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가고 있어 진료외적인 부분에서 또다른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치과병원의 장점으로는 또 단독으로 치과를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조직화된 체계를 갖고 그 속에서 자기 만족, 이를테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기 개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해외 연수로 오랫동안 병원을 비워도 병원이 무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 창원에 4백평규모의 대형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원장은 “개인시간도 늘었고 단독개원 때보다는 더 편하면서도 병원을 며칠씩이나 비우면서 세미나에도 참여 하는 등 자기발전과 개인생활이 윤택해지는 것 같다”고 장점을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이 개인의원 중심으로 돼 있어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며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좋은 점은 없다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래 의료환경에 대비

치과병원화 추세의 또다른 원인으로서는 앞으로 전개될 치과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해서라 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전문치의제로 2차진료기관으로 전문진료에 대비하는 측면도 고려되고 있다.

경기도 이천의 모병원장은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치과의원을 인수해 확장해 공동개원했다”며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져 각지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장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들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많고 회의를 가진 적도 많다고 솔직히 밝히고 있다. 생각한 것만큼 쉽지 않고 신경써야 할 것도 훨씬 많다. 주변 치과의원의 부담스런 눈길도 같은 동료로서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하며 독자개원보다 만족스럽다는데 보다 많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

물론 치과병원같은 대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단독개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치과

◎

**치과의원의 대형화, 치과병원화는
치과계의 또다른 거대한 트렌드라 볼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치과계의 변화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치과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들은 시대의
빠른 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다가올
치과의료 환경을 무시하고는 당연히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

의사로서 만족을 느끼며 변화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치과의원의 대형화, 치과병원화는 치과계의 또다른 거대한 트렌드라 볼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치과계의 변화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치과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들은 시대의 빠른 변화에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다가올 치과의료 환경을 무시하고는 당연히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변화에 따른 치과의사들의 지혜로운 판단은 자신의 몫이다.

최근 대한치과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고 사단법인체로 출범했다. 치과병원협회에는 치과병원도 상당수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치과병원협회가 공식화 됨으로써 치과병원의 이익을 대변하여 치과계의 목소리가 보건의료계 내에서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치과병원의 위상은 현재보다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